

여름맞아 불교학계 학술서 대거 출간

불교학술서 6종 9권

여름을 맞아 불교학계에서 그동안 연구 성과를 모은 다양한 학술서를 펴냈다.

먼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인문한국불교총서 1권인 <테마 한국 불교1>을 발간했다. 인문한국불교총서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이 '글로벌컬러의 한국성 : 불교학의 문화확장담론'을 주제로 10년간 진행하는 사업의 첫 성과로 매년 나올 예정이다.

총 90개의 테마로 사유와 가치, 종교와 국가, 문화와 교류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게 된다.

먼저 <테마 한국불교1>에 실린 주제는 △유식(唯識, 박인석) △충의(忠義, 김호규) △하늘(天, 김명진) △제정일치(祭政一致, 이자람) △원력(願力, 고승학) △사전(寺田, 박광연) △자장(慈藏, 정영식) △변체한문(變體漢文, 김기중) △연등회·팔관회(燃燈會·八關會, 이종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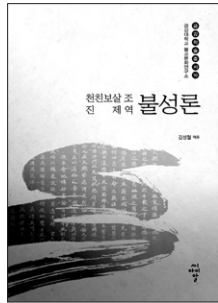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향후 10년간 연구 실적이 이런 개설용 총서 시리즈로 발간되면 보다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체상을 폭넓게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불교경전과 논서들을 역주한 금강학술총서 4권(14~17권)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는 10년 연구 실적이 이어진 '대반열반경집해 여래성품 역주' <원축 해심밀경소 무자성상품 종성론 부분 역주> <불성론> <육로만세람의 보성론의 여래성품>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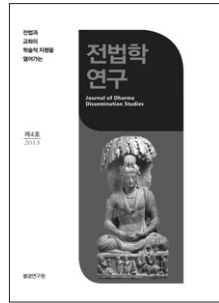
하유진 금강대 HK연구교수가 역주한 <대반열반경집해 여래성품 역주>는 <열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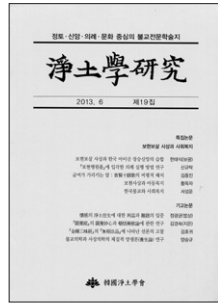
인문한국불교총서(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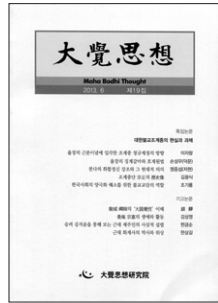
금강학술총서(14-17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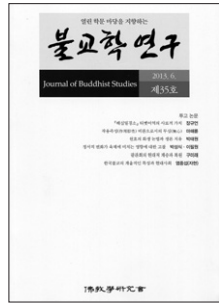
전법학연구



정토학연구



대각사상



불교학연구

에 대한 남조시대 열반사(涅槃師)들의 주석 모음집이며 김성철 금강대 HK교수의 <불성론>은 세진보살의 저작을 역경사인 잔제 스님이 번역한 논서다. 차상엽 금강대 HK교수의 <육로만세람의 보성론의 여래성품>은 타베트 최초의 <보성론> 주석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전법학연구> 제4호를 발간했다. 이 호에는 △초기 대승행자들의 전법정신과 전법론(안성두)

장기 프로젝트 첫 성과 비롯

불교단 역할 등 연구 논길

△금강경에 나타난 전법정신과 전법론(이영진) △전법의 관점에서 본 법화경(이병욱) △화엄경에 나타난 전법론(석길갑) △중앙아시아의 전법사들과 전법행(한지연) 등 대승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을 다룬 논문 5편이 실렸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신선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사 서술 체재와 내용(황인규) △고등학교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사 서술 체재와 내용(서인원) 등 역사교과서의 불교서술 문제를 다룬 논문 3편이

실려 논길을 끈다.

이밖에 광덕 스님의 전법행을 조명하는 논문으로 △광덕 스님의 종단활동과 조계종(김광식) △광덕 스님의 대학생 전법과 대학생불교연합회(한상길) △근대 찬불가 작가의 계보와 광덕선사 찬불가의 문학적 형상(김상일) △광덕 스님의 범문과 저술에 나타난 문학적(정진구) 등 4편도 수록됐다.

한국정토학회(학회장 성운)가 최근 펴낸 <정토학연구> 제19집은 '보현보살 사상과 사회복지'를 특징으로 다룬 이번 호에는 △보현보살 사상과 한국 아미산 장승신앙의 습합(보광 스님) △'보현행원'에 입각한 의례 실행 방법 연구(신규택) △군여가 가리키는 달: '보현심원'의 비평적 해석(김종진) △보현사상과 아동복지(황옥수) △한국불교와 사회복지(성운 스님) 등 논문이 실렸다.

기고논문으로는 △회감의 정토왕생에 대한 이익과 난제의 입증(범상 스님) △'일각경'의 원각묘심과 돈오점수론에 관한 연구(지은 스님) △'금강삼매경'의 '무상법문'에 나타난 선론의 고찰(김호규) △불교의학과 사상의학의 제질적 양상론 연구(양승규) 등 논문이 실렸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대각사

상> 제19집을 펴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현실과 과제'를 특징으로 다뤘다. 19집에는 △울장의 근본이념에 입각한 조계종 청규제정의 방향(이자람) △울장의 정계갈파와 호계원법(덕문 스님) △부타의 화합정신 강조와 그 현대적 의의(자현 스님) △조계종단 중정의 역사상(김광식)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단원의 역할(조기룡) 등 논문이 실렸다.

기고논문으로는 △용성선사의 '대원각성(大圓覺性) 이해(호정 스님) △만암 종현의 생애와 활동(김상영) △승려 김석윤을 통해 보는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한금순) △근대 회계사의 역사와 위상(한상길) 등 논문이 게재돼 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불교학연구' 제35집을 펴냈다. 투고 논문으로 구성된 이번 논문집에는 △'해심밀경소' 타베트어역의 사료적 가치(장규연) △작용즉성 비판으로서의 무심(마해륜) △원효와 화쟁 논법과 정론 치유(박태원) △정서적 변화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박성식·이필원) △팔관회의 현대적 계승과 복원(구미래) △한국불교의 계승적인 특징과 현대사회(자현 스님) 등 논문 6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학술·문화재소식

고암 스님 열반25주기 세미나 8월 18일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조계종 종정을 지낸 고암스님의 열반 25주기를 맞아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고암문도회는 고암 스님 열반 25주기를 맞아 8월 18일 오후 1시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용성조사와 고암대중사의 생애와 전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과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동

국대 교수 진월 스님,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겸임교수 성원 스님 등이 백용성 스님과 고암 스님의 인연, 고암 스님의 생애와 업적, 선사상 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해인사 교수가 종묵 스님, 현석 스님 등이 토론자로 나서고 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무경자수 선사 저서 3권 한글본 출간

<무경집> <무경실종어록> <불조진심선격초> 등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 결과를 세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세 권은 조선 중기 무경자수(1665~1737) 선사의 시문집인 <무경집>, 범어와 계승을 엮은 <무경실종어록>, <불조선격>의 초록인 <불조진심선격초>의 교감·해제본이다.

<무경집>은 유·불·선의 본질과 관계

성에 대한 학문적 견해를 논의한 논설이 주목되는 시문집이다. <무경실종어록>은 기존 선어록 양식과 성격을 유지하면서 선종의 주요 논제와 화두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불조진심선격초>는 불교를 중심에 두고 다른 사상을 회통하려는 이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선종 종지를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설명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학, '광해군과 인조' 세미나

8월 10일, 남양주 봉인사 지장전에서

동국대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8월 10일 오후 1시 30분 남양주 봉인사 지장전에서 '광해군과 인조 시대의 재인식'을 주제로 제5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집중세미나에는 △계승범 서강대 교수의 '광해군의 대내 정책' △오항녕 전주대 교수의 '인조의 대내외 정책' △이철현 동국대 갈등치유원 전임연구원의 '청해계의 선사상과 범종 인식'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부휴계의 선사상과 범종 인식'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논평은 장지연 대전대 교수, 이성운 동국대 외래교수, 허대구(서울대 규장각 연구교수), 재미향(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원), 최동순(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서은희(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원), 변희욱(서울대 철학과 외래교수), 정성우(한국선리연구원 상임연구원) 등 학자가 맡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반가사유상 국외 반출 '불허'

국립중앙박물관이 추진하던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뉴욕 전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7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한 문화재 21건 26점 가운데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등 3건 3점을 제외한 18건 23점(국보 8건 9점, 보물 10건 14점)만을 뉴욕에서 전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욕 전시를 위해 국외 반출이 금지된 국보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비롯

해 국보 제91호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국보 제195호 도유장식 정경호 등 3점이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입장은 훼손될 경우 대체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문화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10월 29일부터 2014년 2월 23일까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황금의 나라, 신라' 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한바 있다.

노덕현 기자

무형유산 정책집행 국립무형유산원 준공

문화재청, 31일 전주에서 준공식 및 CI 선포식

무형유산의 보존·전승·교류 등을 담당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준공됐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7월 31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현장에서 준공식과 함께 CI를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06년 착공식을 가진데 이어 8년 동안 총사업비 759억원을 투입했다. 대지 5만 9930㎡, 연면적 2만 9615㎡,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공연, 전시, 아카이브, 교육, 국제교류 공간 등을 갖췄다. 무형유산원은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5월 경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되는 다양한 무형유산보호 정책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국립무형유산원 CI는 무형유산을 '어울림'으로 형상화해 보존·전승을 위한 세대 간의 소통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은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준공되는 시설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과제와 새롭게 제기

동국대, 동아시아 불교학 네트워크 추진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대만 국립대와 협약

동국대가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대만 국립대 등 동아시아 명문대학들과 함께 불교학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동국대는 매년 불교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동으로 동아시아 불교영문 저널을 발간하고 연구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최근 "동아시아 명문 대학들과 불교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첫 사업으로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HK연구단은 2012년부터 베이징대학 철학과, 도쿄대학 인도철학과, 대만국립대학 불교연구센터 등과 학술교류

사업을 논의해왔다. 2월 중 김종욱 HK연구단장이 베이징대와 도쿄대 등을 방문하며 2014년 5월부터 불교 주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동아시아 국제불교학술대회는 첫 대회를 동국대가 주관하며 이후 각 대학이 돌아가며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는 동아시아 불교와 관련된 사상, 역사, 문화, 인물, 의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불교영문저널 공동 발간도 추진한다. 4개 대학이 공동으로 국제학술지 A급인 A&HCI 등재 영문저널을 발간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인도불교와 티베트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계 불교학의 흐름을 동아시아불교로 되돌리겠다는 복안이다.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